

<금호석유화학>

원료가 하락 · 제품이 담합 순이익 큰폭 증가

금호석유화학(대표 김흥기)은 합성고무산업의 정체를 반영, 91년 매출규모가 1701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 신장에 그쳤다.

매출정체 및 설비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95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재료비 하락 및 감가상각비 감소로 원가율이 90년 86.0%에서 91년 76.6%로 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별로는 SBR 고무의 91년 매출 규모가 786억원으로 2.0% 감소했으며, BR부문이 504억원으로 2.0% 감소하는 등 총 매출규모중 각각 46.2%, 29.6%를 차지하고 있는 두 분야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SBR라텍스는 울산퍼시픽(2만톤)이 90년 9월부터 4만여톤 시장에 신규 참여, 그동안 금호석유화학이 3만1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 독점해온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의 이 분야 매출은 151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신장되었다.

<표1>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단위:억원, %)

항 목	1988	1989	1990	1991
매 출 액	1367.0	1219.2	1657.5	1701.2
증 가 율	△4.8	△10.8	35.9	2.6
매출총이익	223.9	155.3	231.9	397.4
영 업 이 익	154.2	62.3	105.9	254.5
경 상 이 익	106.4	32.9	72.0	120.8
당기순이익	63.6	22.6	63.5	95.3
증 가 율	△71.1	△64.4	180.8	50.0
유 동 자 산	512.5	576.2	709.7	810.1
고 정 자 산	1111.3	1308.8	1673.1	1829.2
자 산 총 계	1900.8	2408.0	3197.2	4017.1
유 동 부 채	338.8	514.7	1029.7	1078.3
고 정 부 채	418.9	379.2	376.8	796.0
부 채 총 계	757.7	893.9	1406.5	1874.4
자 본 금	375.4	499.8	701.2	906.2
자 본 총 계	1143.0	1514.1	1790.7	2142.6

<표2>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사업별 영업실적 및 전망

(단위:톤 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예상)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증감률	수 량	금 액	증감률
S B R	113,367	801.7	109,911	786.0	△2.0	111,000	801.0	1.9
B R	62,421	514.8	65,345	504.0	△2.0	65,000	519.0	3.0
S B - L	20,312	124.8	22,713	151.0	21.0	22,000	157.0	4.0
합 성 고 무	196,100	1441.3	197,969	1441.0	—	198,000	1477.0	2.5
부 타 디 엔	116,363	91.5	97,718	65.1	△28.9	109,000	}259.0	}△0.5
기 타	12,202	124.7	315,864	195.1	56.5	322,000		
총 매 출	324,655	1657.5	611,551	1701.2	2.6	629,000	1736.0	2.0

주) 증감률은 금액기준, △는 감소

이는 SB-L가격이 지난해 초 톤당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25% 정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예상 매출규모는 1736억원으로 전년 수준인 2.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사업별로는 SBR 801억원 1.9% 증가, BR 519억원 3.0%, SB-L 157억원 4.0% 증가 등 주요 합성고무 신장률은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초 울산소재 5만톤 규모의 BD공장이 4월 시험가동을 거쳐 5,6월중 본격생산이 예상, 여천의 10만5000톤 BD공장외 울산소재 BD공장을 갖춤으로써 자금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BD판매는 자체소비를 제외, 1500톤(3억5000만원) 판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 사업이 독점체제로 호황을 누릴 수 있음에도 시장 자체의 성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밀화학 · 신소재분야 투자를 확대, 활로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태리 에니켄과 합작 PC사업, 일본 미쓰이도아쓰와 합작 MDI 사업, 미국 GE와 합작 CTE사업을 추진 전개하는 등 소재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단, 자금 · 시장 문제로 에니켄은 국내시장을 철수했다.

또 중공(Voide) 타입의 플라스틱 피그먼트기술을 도입했으며, 미국 콜롬비아의 기술을 도입, 93년 이후 5만톤 규모의 카본블랙사업에 신규 참여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1992/6/1>